

가루녹차 전용 품종 '진설'

이성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064)760-7433

제주지역 차나무 재배면적은 2018년 568ha로 '야부기다', '후순' 등 대부분 일본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루녹차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농가들은 차광재배에 의한 가루녹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루녹차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 없어 대부분 일본 품종을 이용하고 실정이다. 이에 녹색도가 짙고, 잎이 부드러우며, 품질이 우수한 가루녹차 생산 전용 품종 '진설'을 개발하였다.

○ 육성 경과

'진설(제주T-6호)'은 2003년 경남 하동에서 수집된 종자의 실생묘 중 소질이 우수한 96계통에 대하여 2009~2011년까지 특성검정을 거쳐 4계통을 선발하였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면서 생육 및 가공 특성을 평가한 결과 녹색도가 짙고,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제주 T-6호를 최종 선발하였다. 2019년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직무육성 계통으로 선정되었으며, 품종명은 아름다운 옥돌빛 진(璣)과 차나무 설(設)자를 이용하여 '진설'로 명명하였다.



○ 주요특성 및 우수성

‘진설(제주T-6호)’의 숙기는 중생종이며, 생육 정도는 양호하다. 새싹수가 많고, 찻잎 두께가 얇아 부드럽다. 대비품종인 ‘참녹’에 비하여 녹차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과 감칠맛을 내는 테아닌 함량이 높았다. 반면, 쓴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낮았다. 가루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녹색도 값이 ‘참녹’보다 높아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다.

○ 품질 특성

품종명	아미노산(%)			테아닌(%)			카테킨(%)			녹색도 값		
	'18	'19	평균	'18	'19	평균	'18	'19	평균	'18	'19	평균
참 녹	1.93	2.59	2.26	1.00	1.24	1.12	14.0	13.8	13.9	26.6	29.0	27.8
진 설	2.61	3.93	3.27	1.26	1.93	1.60	13.9	11.6	12.8	27.8	30.7	29.3

※녹색도 값: 색도색차계로 측정

○ 가지, 잎, 새싹 모양



○ 재배상 유의점

차나무는 추위에 취약하여 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해를 입고, 심하면 동사하기 때문에 차밭 조성 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기 전지·전정과 균형 시비를 통한 수량 및 품질 증대가 필요하다.